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FAX: (02)737-0697/8
※ PC통신: 인터넷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mem/hanmaum

마음 발전 없인 물질세계도 발전 못해

"이 시대에 부족한 것은 마음발전 마음공부 안하면 허깨비 같아 어느 나라 국민이든 허탈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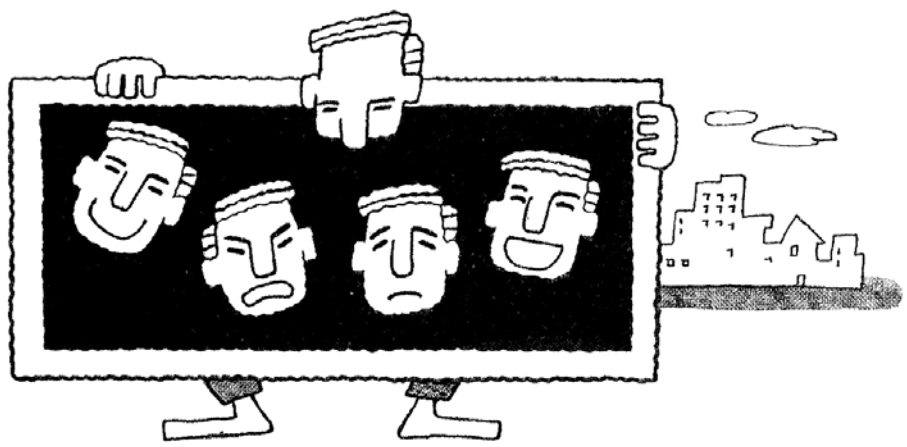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 몸속 중생 제도해야 바깥중생 구제"
"믿지못해 되새김질 하니까 안놓아지죠"

이렇게 늘 한자리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한마음을 내면서 한시 반시도 끊어뜨리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 어느 나라 어느 세계를 막론하고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혼합해서 같이 발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즉 정신세계가 발전해서 물질세계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러기에 영의 세계와 현상세계가 더불어 같이 익어 들어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먼저 마음공부에 철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철이나 구리, 유황을 가루로 만들어서 섞어 놓아도 합성이 되지 않지만 그걸 굽는다면 합성이 되어서 다른 물질이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합성이 안되면, 말하자면 참자기와 현실의 자기가 둘이 아닌 도리를 완전히 터득하지 못한다면 불이 들어 올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통하지 않는 것이지요.

일체 만물만생이 둘이 아니다 라고 말로만 그렇게 알아서는 안됩니다. 하나 하나 두두물물이 모두 귀중한 줄을 내가 체험해 보지 못한다면 둘이 아니라는 것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 '마음부터 닦아라'하는데 그게 뭔 뜻이냐 하면 내 마음이 이끄는대로 내 몸 속의 중생들이 다 보살 마음으로 더불어 하나가 되어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 속에 들어있는 중생들의 의식부터 화해서 한마음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제 각각이라서, 급한 일이 있어도 제 각각 돌아갈게 아니겠습니까? 그 중생의 의식이 제 각각이라면 악업 선업의 마음들이 코살의 마음으로 바뀔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천백억으로 나투는 화신도 될 수 없고 응신도 될 수 없고 보현도 부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용신 지신이나 칠성의 마음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마거사가 왜 중생들의 병이 다 나아야 내 병도 낫겠다고 했는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몸 속의 중생들이 도리를 알아 병이 나아서 건강해야 내 몸도 건강하지, 내 몸속의 중생들이 건강치 못한데 내 몸뚱이가 어찌 건강하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허깨비나 다름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부족한 게 뭐냐하면 마음의 발전입니다. 모두들 마음의 발전이 없다 보니까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국민이든지 허탈해져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일본도 우리 이상으로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에 사명대사에게 혼쭐도 나고 몇번 당하다 보니까 그로써 깨우치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사명대사에게 혼쭐이 날 때도 그랬겠지요. '아, 부처님 법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사람도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하는 걸 터득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립적인 생각을 했고 조직적으로 강렬하게 단합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보다 발전을 하게 되었지요.

아무튼 이 마음의 발전이 없으면 물질세계도 발전하지 못합니다. 부처님 법이 꼭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이 국민이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같이 살고 같이 창조하며 발전해 나가는 게 부처님 법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생활 속에서 해결하고 가야 하니까 서로 이끌어 주고 아주 세심하게 마음도리를 일러주고 또 관(觀)하는 도리도 일러줘야 하겠지요. 자신들도 바로 공부를 하면서 내 몸 속의 중생들도 제도하고 상대를 나로 보고 그렇게 해나가야 하겠지요.

그래서 누구라도 이 공부는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좀 언짢다 싶으면 그냥 얼굴을 붉히고 상대가 좀 못났다 싶으면 짓밟으려 하고…, 그래서야 어떻게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길래 늘 말씀 드렸지요? 언짢은 것, 싫은 것, 속 썩는 일 모두 내 근본의 마음자리에다 놓고 '너만이 할 수 있어! 너 만이 구정물을 새 물로 바꿀 수 있어!'하고 놓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악한 것 선한 것, 업보다 팔자 운명이다 하는 것 다 무너지고 몸 속의 중생들도 다 제도가 되고 개인이나 나라나 이 병증세도 다 타파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기가 생각을 지혜롭게 낼 수 있어야만 부처님의 말씀이 한데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냥 업식으로 돌아가니 그 일을 다 어쩌시려구요.

현실의 생활에서 닥치는 가난 또는 병고, 업보들, 유전성이나 영계성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또다시 이 세상에 나오는데 사람 사는게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너무나 철두철미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생각이라도 잘 짓고 지혜롭게 해야 부처님 말씀을 한데에 떨어뜨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들 앞에 닥치는 일들은 바로 공부의 대상, 공부의 재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앞에 말 탄 양반도 오고 소 탄 양반도 오고 애고가 있는 분 없는 분 그 어떤 분들이 와도 듣는게 있고 생각해 볼게 있고 행동할게 있는데 그것마다 모두 공부의 재료입니다.

내 집안에서 일어나는 것, 몸속에서 일어나는 것, 상대성으로 오는 것…, 그게 다 공부재료입니다. 닥치는 것마다 공부 재료 아닌 것은 없습니다.

가령 아랫 사람을 이끄는 일만 해도 거저되는게 아닙니다. 자기의 일거수 일투족이 하나하나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우주간 법계로 통신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음으로 하면 악하게 전달이 되고 선한 마음이면 선하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악한 것도 놓고 선한 것도 놓아라 이겁니다.

여기 촛불을 켜려면 성냥 인연, 초 인연 심지 인연, 인연 인연이 종합해서 불이 켜지게 되는 것이지 종합이 되지 않으면 불이 켜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충 대충인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철두철미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놓아라 이거지요. 이 가난이 다 애고다 하는 것도 다 그렇게 인연지어져서 오는 것인데 그러면 도무지 어찌 해 볼 수 없단 말이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해 놓은 것은 바꾸기가 쉽지 않고 이걸 바꾸려면 다시 굽든지 부수든지 아무튼 다시 만들어 내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란 체가 없어서 체가 없는 것은 체가 없는 데서 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고가 닥치든지 '너만이 할 수 있어!'하고 내 마음의 근본 뿌리에다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못미더워서 놓았다가 다시 끌고나와요. 믿지를 못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되새김을 하니까 놓아지질 않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 걸어 다니면서 뒷 발자취를 생각합니까? 거기에 착을 두고 다시 내가 걸어 왔다는 길 생각합니까? 누구라도 그런 생각없이 그냥 걸어가듯이 그렇게 놓고 가면 되는건데 말입니다.

예전에 내가 공부할 당시에 한번은 '주인공 네가 있다면 주먹을 한번 들어봐라'했더니 안들려요. 그래서 마음 딱 가라 앉히고 다구쳤더니 그냥 손이 번쩍 들린단 말입니다. 잘 알아 들으시라고 하는 말입니다만 이 마음으로 완전히 놓아지지 않으면 끌고 가는 게 되는 것이고 완전히 놓아졌다면 그냥 불이 켜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공부라는 이름에 그냥 팔려 다니시지 말고 아주 진실하게 지극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하나 놓고나가 보세요. 그런다면 내 몸속의 중생들도

☞ 18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생활 속의 불교 (165)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생활 속의 작은 불씨 하나.

"어머니가 도둑질한 자기 자식을 말없는 슬픔으로 감싸듯이 다른 사람의 행업을 마음으로 감싸면서 자비심을 내도록 하라. 정법이니 사법이니 가리느라 신구의로 업을 짓지 말고 다만 그윽한 마음으로 대하도록 하라.

대비심이 없는 공부는 작은 공부이다. 자기만의 기쁨과 편안함을 넘어서서 모두가 함께 편안한 차원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러자면 수행자는 모름지기 풀 한 포기라도 버리지 않는 대비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함께 산다.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자연과 더불어 산다. 때로는 홀로 사는듯이 여겨지지만 나 홀로란 없다.

깊은 산중에 들어가 독살이를 한다고 해도 그는 사회 속에 있는 것이며 자연과 함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 만물만생은 공생관계에 있으며 함께 쓰고 함께 먹고 함께 지으며 산다고 한다. 삶이란 곧 함께 짓고 함께 하는 관계이다. 그러므로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고로 어느 누구에게나 다만 한 순간이라도, 산다고 하는 것은 곧 공생이요 공용이요 공심이며 동조 · 호응 · 참여 · 분담 · 협조 · 협력 · 후원…의 관계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점을 잊고 산다. 때로는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려서 남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투쟁하기까지 한다. 심지어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방적이 될 때가 많다. 자기를 아낌이 지나친 탓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진정으로 아낀다면 그만큼 상대를 아껴줘야 나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대접 받고 싶은 만큼 대접해야 내게 돌아오는 게 있는 법이다.

더불어 사는 세계에 어떻게 일방통행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도 맞지 않는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라면 모름지기 사섭법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어디 수행자 뿐이랴. 우리 모두는 공생하고 있는 것을.

보시 · 애어 · 이행 · 동사, 그것은 곧 삶의 기본지표이자 자연의 섭리를 이름이다.



애어(愛語). 부드럽고 온화한 말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다. 시비곡직(是非曲直)을 가리기 전에 고운 말이 건너가면 오는 말도 부드러워진다. 설사 내가 옳다고 믿더라도 먼저 말이 따뜻해야 한다. 따지고 드는 말은 반드시 반론을 불러 일으켜 논쟁이 되고 싸움이 된다. 그러나 열린 마음으로 말이 부드럽고 온화해지면 거기엔 이해와 동조가 있다.

이행(利行). 나의 행동, 나의 언어, 나의 의념(意念)이 일방적이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앞세운다면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는가. 저 험오스러운 정치판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고로 상대의 처지를 살피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서 가까이 다가가라. 그러면 거기엔 양보와 이해가 함께 하고 선행과 이익이 동행케 될 것이다.

동사(同事). 상대방의 성품을 이해하고 거기에 마음을 맞춰 함께 하고 도와주는 것. 마음과 마음이 포개져 동심원(同心圓)이 되어 행동을 같이 한다면 그것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한 울력이 아니겠는가. 내가 단상에 높직이 앉아서 상대보고 올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단하로 내려가 상대의 손을 잡고 같이 단상으로 오를 때 거기에 더 많은 길과와 더 큰 나눔이 있게 된다.

보시(布施). 애어와 이행과 동사가 있는 곳엔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 어찌 좋아하는 재물을 주고 진리를 말해 주어야만 보시라고 하랴. 함께 하고 함께 짓고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보시이다.

우리가 사랑한다, 좋아한다고 말할 때 대개의 경우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좋다고 하고, 내가 사랑하는 것만을 사랑하는 경우이다. 거기엔 내가 있다. 나의 관념, 나의 기억, 나의 논리 따위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상대 세계에서 어떻게 나만이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와 상대가 동시에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나의 관념 세계속에 두개의 중심이 있어야 비로소 '참'을 말할 수 있다.

불법은 그 '참' 속에 있다. 아니, 그것이 곧 불법이요 자연의 섭리다.

비록 대비심이 아닐지라도 생활 속의 작은 자비심 하나가 불법을 살리는 불씨가 된다.

협 찬 : 이장욱 · 이정욱